

---

## 토론문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및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SESCO) 사무총장

중앙아시아는 오랜 문명과 종교,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며 이들의 향후 정신적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 방대한 문화자료 속에 뒤엎혀 있으며, 이러한 유산은 민간전승, 설화, 축제와 놀이, 전래동화, 사회적 행동 규정 및 규범을 비롯해 음악, 노래와 춤, 국가적 관습과 장식 및 응용 미술과 공예를 통해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역 내 모든 국가가 이를 기념하고 있다.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각 나라의 풍부한 정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유네스코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그 외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SESCO)와 국제투르크문화기구(TURKSOY)와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세계 문화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타 문화에 대한 상호 학습 및 공존의 노력 없이 각국의 정신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국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자흐스탄이 이 분야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여전히 비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국내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는 ‘나브루즈 축제’와 ‘서사예인 아킨의 기예’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공동 등재할 때에도 카자흐스탄은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 내년에는 이러한 간극이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의 여러 관련 기관에서 수년 간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방대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카자흐스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최초 등재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전문가 차원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단독 혹은 공동 등재를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절차상 문제 없이 등재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공간을 포함하는 정책 실행을 요하는 만큼 추가적인 국가적 지원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은 2004년부터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성공리에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국가전략 프로그램인 ‘마데니무라(Madeni Mura)’가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카자흐스탄의 역사 및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문화유산의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 국제투르크문화기구에 속한 회원국들(투르크어를 사용하는 14개 국가 및 지역 포함)의 제3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센터의 참관인 및 대표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노르웨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유네스코 사업계획을 환영한다.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될 예정인 이 계획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 분야에서 지역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국가적·국제적 사업은 모든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적 가치가 여러 국가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 관계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화적 가치는 세대 간의 공고한 유대감과 정신성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그들을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는 카자흐스탄이 제출한 2012-2022 세계 문화 화해를 위한 10개년 계획 선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이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 증진을 위한 수많은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산과 모든 예술품 및 기념물은 전체 역사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이들 문화 유산은 유일무이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잃는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각국의 임무는 미래 세대를 위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토론문

샤힌 무스타파예프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예로부터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문화적 요충지로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파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실크로드의 주요 경로들이 중앙아시아의 영토를 관통하며 관용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문화 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더불어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음악, 민속, 관습과 의식, 축제, 응용 미술과 공예분야에 풍부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난 수세기에 걸쳐 후대에 전승되면서 독특한 종교문화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도 세계화의 확산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무형문화유산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소실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원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3개국이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중 몇몇 문화관습과 표현물은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 **키르기스 서사예인 아킨의 기예(키르기스스탄, 2008)** : 키르기스스탄 유목민들의 주요한 문화적 표현 양식은 서사(narration of epics)이다. 키르기스스탄 소리꾼인 아킨의 기예는 노래, 즉흥시, 음악 등 여러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다.
- **샤쉬마콥 음악(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2008)** : 지난 1,000여년 동안 이어져온 고전 전통음악인 샤쉬마콥은 오늘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마와라-알-나르로 알려진 중앙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6개의 마콥'을 뜻하는 샤쉬마콥 음악은 성악, 악기 연주, 선율과 리듬이 있는 표현양식과 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 **보이순 지역의 문화 공간(우즈베키스탄, 2008)** : 우즈베키스탄 동남부에 위치한 보이순 지역은 소아시아와 인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중앙아시아가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보이순 지역은 상당히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사머니즘에서 조로아스터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고대 전통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
- **나브루즈 축제(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2009)** : 나브루즈는 새해와 봄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제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매년 3월 21일에 열리는데 이 날짜는 본래 천문학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정하였다. 나브루즈는 다양한 지역 전통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축제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지역마다 다양해서, 이란에서는 불과 냇물 뛰어넘기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줄타기, 문 앞에 등불켜기, 경마와 전통 씨름과 같은 전통 놀이가 펼쳐진다.
- **카타 아술라(우즈베키스탄, 2009)** : '큰 노래'를 뜻하는 카타 아술라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민요의 일종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계곡에 사는 다양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유산이다. 페르가나 계곡은 타지크인, 위구르인, 투르크인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일부가 이 지역에 해당한다. 카타 아술라는 공연예술로써, 노래와 악기 연주, 동양의 시와 성스러운 의식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 목록작성 관련 문제점

-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님
- 전문가 수준의 역량 부족
- 기술 및 통신 장비의 부족
- 제도적 토대의 미비
- 지역 공동체의 참여 부족
- 재원 부족

### 국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역량 개발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술 및 통신 시스템
-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 무형문화유산 목록 출간

###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활동

- 제1차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10년 3월).  
실천계획(action plan) 채택
-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한국 서울, 10~11월).  
실행촉구안(Call for Action) 채택
- 제2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중앙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타지키스탄 두산베, 6월 28~29일). 2011~2013년 실행계획(work plan) 채택

###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기록화를 위한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IICAS) 활동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IICAS)는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기록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응용 미술 지도(Atlas of Applied Arts) 1999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는 중앙아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응용예술품들을 목록화하는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바로 수공예품의 종류와 주요 중심지를 지도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연구 성과물로 응용 미술 지도책 4권을 발간했으며 각 권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공예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은 순수예술과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싣고 있으며 과거 연구된 적이 없는 중앙아시아의 민속 예술품목도 새롭게 조명하였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응용 미술 지도는 분명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자니(Suzani) 2011년 연구소는 O.A. 수크하레바(Sukhareva)가 저술한 『스자니, 중앙아시아 전통 자수』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스자니는 타지크족과 우즈베크 족 등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독창적인 자수 기법의 일종이다.

9~15세기 아시아의 기예 중앙아시아의 예술 공예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보호 및 목록작업을 위해 연구소는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및 예술 연구 활동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에 열린 연구소의 정기총회에서 “중앙아시아의 응용 미술 (9~15세기)”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이를 2012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는 5권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제 1권은 도자기, 2권은 건축, 3권은 유리, 4권은 금속, 5권은 식물 및 골조 조각에 대해 다룬다.

IICAS 게시판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연구소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다양한 관련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게시판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음악, 공예, 종교 및 의식 관행, 전통 종교와 지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

## 토론문

샤홀로 아브두라히모바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창립에 즈음하여 그간의 활동에 대한 중간 결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두 차례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2010년 3월 타슈켄트와 2011년 7월 두산베에서 소지역 네트워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역내 전문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전반의 관심을 증대시킨 것이다.

초창기 경험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문제는 다각적인 국제협력과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에서야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전에는 구소련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보호 방침이 항상 효과적으로 작



용한 것도 아닐뿐더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이 당국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국제적 지원을 받아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는 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의 모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양국은 샹쉬마콴(Shashmaqom) 음악을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2003)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2008)에 공동 등재하였으며, 샹쉬마콴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는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적, 공식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두산베 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work plan)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즉각적으로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예비목록을 작성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대문명의 교차로에 자리한 중앙아시아는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종목의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상호 지원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3월 두산베에서 나브루즈 축제가 개최된다는 점을 알린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전 세계 귀빈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발전과 보호에 기여해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나브루즈 축제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전통축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및 터키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나브루즈 축제의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타지키스탄은 등재 신청 작업 당시 유네스코 협약을 채택하지 않은 관계로 등재 신청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현재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의 지위를 얻은 타지키스탄이 등재 신청국으로 이

름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듯,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가 및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국가 과제이자 의무로 여기고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참여자들이 협력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년 타지키스탄에서 열리는 나브루즈 축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